

가정학의 메타이론 : 인간생태학적 접근의 타당성

The Meta-Theory of Home Economic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점연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

Lecturer : Jung-Yeon Lee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사회과학의 주요 관점
 - 2. 새로운 과학철학의 경향
 - 3. 가정학의 새로운 이론구축을 위한 시도
- III. 요약 및 결론

〈Abstract〉

Major studies of Home Economics have had an intention to keep the standard scientific perspective based on value-free and positivism. But in the early 20C, there was a change within scientific philosophy and the holistic perspective has risen in the part of social and natural science.

The phenomenon dealt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i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and it regards human and family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as a major object.

This interaction can be micro/macro, and objective/subjective. So, it has a very complex trai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Human Ecology as an alternative framework to explain each level of the family phenomena.

Further, it is concluded that it is very efficient to present Human Ecology as a general theory for Home Economics, because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understanding interdependence and persuing for balanced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Human Ecology is not a past theory, but a very comprehensive one to construct an abstract theory-building.

I. 서론

가정학은 고유한 이론이 없고 경험적 연구에만 치중하여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초기의 가정학은 이론보다는 기능이 먼저 필요했고, 또한 그 시기의 가정학은 현실에서 시급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가정적인 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쳐줌으로써 생활을 높여 나가는 것이 사회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장병욱, 1993: 68). 따라서, 가정학은 학문적 본질보다 실용적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

둘째, 19세기의 실천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응용과학, 실천과학으로 탄생한 가정학은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이나 학설을 전개하기보다는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에 치중하고 있었다(문수재 등, 1993).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의 전형적인 연구경향으로서, 그로인해 과학의 이론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과학적 방법론 측면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정학이 양적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이룩하였음에도 그 연구결과들이 어떠한 계통에 의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 해석에도 다른 학문의 기존이론을 일관성없이 차용함으로써 이론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가정학이 응용과학이므로 타분야의 이론과 학설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됐지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타학문의 이론이 가정학에 적합한 가설이나 변인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 어떤 학문이든 이론의 정립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 단편적인 지식의 귀납적 축적만으로는 학문의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등을 피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학이 가정학 고유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는 많이 행해져 왔고,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실증적 연구에만 치중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가 이론의 체계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또한 전체적인 틀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상 이론의 체계적 정착에는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양적인 증대가 결국 총체적인 학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의 개념틀 속에서 연구의 위치를 조망해 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실증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어 체계적으로 이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기영, 1986: 15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학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으로서 정립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제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하나의 시도로서 일반이론으로서의 인간생태학의 적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 과학의 주요 관점

학문의 발전과정은 우선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그 지식에서 보편타당한 이론을 추출해 낸 다음, 이론을 실증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히 행해지면서 이루어 진다.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를 저술한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이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는 기존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과학이란 누적적·연속적인 과정을 밟기보다는 사고의 혁명으로 비연속적으로 변동한다고 보았다. 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우선 패러다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 내부에서 가장 넓은 일치의 단위이며, 하나의 과학공동체(혹은 하위공동체)와 다른 것들을 구분하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실례들, 이론들, 그리고 그것 내부에 존재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포괄하고, 규정하며, 그리고 상호관계지운다.」(Ritzer, 1975).

그는 어느 주어진 시대의 과학은 하나의 특수한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상과학은 지식축적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과학자들은 군

림하는 패러다임을 증명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 그런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 패러다임과는 모순된, 또는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한다면 패러다임의 존재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위기는 결국 기존 과학에 대한 혁명을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메타이론에 대한 연구는 쿤의 과학철학에 영향을 받아 여러 학문에서 시도되었으나 그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학이다. 사회과학의 경우, 주된 접근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바 실증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내려온 표준과학관이고, 둘째는 표준과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해온 것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적 사회과학관이라 일컬을 만한 조류이며, 셋째는 비판적 사회과학관이다 (김경동, 1986).

표준과학관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실증적 접근을 해야하며 접근으로서 경험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량화하여 이론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실증주의, 행동주의 등이 이에 속하며,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해석적 사회과학관은 인간의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막스 웨버(Max Weber)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관주의 전통이 이에 속한다. 인간의 사회는 단순히 자연현상처럼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의 세계로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 현상학적 사회학, 민속방법론, 주관주의 사회학 등이 이에 속한다.

비판적 사회과학관은 주로 프랑크푸르트(Frankfurt)학파라 일컫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의 초점은 이론과 실천의 문제에 있다. 막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관점은 사회라는 실재를 역사적 구조라는 변증법적 안목에서 파악하려는 것으로 인간과 사회사이의 상호 형성적인 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며, 인간사회는 사회적 맥락으로 매개되는 사람들의 공동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김경동, 1986). 현재의 사회구조의 한계

와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평가하는 비판과 실천을 중요시하며, 가치관에 있어서도 다분히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리처(Ritzer)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분류한 바 있다. 그는 사회학이 아직 통합된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 복합 패러다임 과학이라고 말하고, 크게 사회적 사실 패러다임, 사회적 정의 패러다임, 그리고 사회적 행동 패러다임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이들을 모범, 주제의 표상, 방법, 이론의 네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분석하였다(최재현 역, 1988).

이들의 분류에 의한다면 가정학은 현재까지는 표준과학관 또는 사회적 사실 패러다임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사상을 관찰한 결과로부터 일반적 명제를 도출하려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가정학이 다른 학문으로부터 받아들인 비난들, 예를 들면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여 결과는 있으나 논리적 결론은 없다는 점, 중산층 계층에 국한된 연구를 해왔다는 점 등도 표준과학관을 하나의 정상적 모델로 삼아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정학이 초기의 관심이었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존적 관계를 재인식하고 인간의 어떠한 의식이나 행동이 가치관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아가기에 따라 해석학적 관점, 사회적 정의 패러다임이 점차 수용되고 있다.

2. 새로운 과학철학의 경향

오늘날 뜻하는 과학지식의 틀이 형성된 것은 물론 20세기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16세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에서 시작되었고, 17세기 데카르트적 철학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18세기 뉴턴에서 확고한 자리를 굳혔다. 신학적 자연관을 대체한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과학기술은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19-20세기에 걸쳐 과학지식과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박이문, 1993).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철학적 뒷받침은 논리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다. 논리 실증주의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원칙적으로 물리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현상이 설명된다는 것이다(박이문, 1993). 그러나 하이젠베르크(H. K. Heisenberg)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적 차원에서 어떤 물리 현상도 결정적으로 서술할 수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준다. 또한 첨단 과학 이론인 양자역학은, 극히 미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물리현상은 기계적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음을 입증했다(박이문, 1993).

한편, 인간중심적 과학기술은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나, 그만큼 인간의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하였고, 공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자초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과학 또는 학문의 가치와 사명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관심사가 자연 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 누구나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물이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은 가치중립적이고 기계론적 인과법칙을 중시하는 관점으로부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주관주의적, 해석학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과학철학 내에 변혁이 일어나 논리실증주의 중심의 통념적 과학철학이 무너지고 신칸트학파적 인식론을 위시한 새로운 과학철학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물리주의, 검증주의, 환원주의를 강조하던 과학철학이 무너지게 되었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심성적 개념이 타당한 과학적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이정보, 1987).

실증주의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도 새로운 현대학문들이 거두고 있는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다. 그 학문은 사이버네틱스, 자동이론, 신경생리학, 생화학, 양자역학, 환경학, 의학, 공학, 경영학 등의 획기적 성과가 낳은 학문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과학이나 과학적 전망에도 가치판단이 있다고 믿는 학자들에 의해 나타난다. 새로운 과학상은 과학을 하나의 문화활동의 흐름으로

보면서 과학의 변증법적이고도 규범적인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 과학상은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이좌용, 1983).

기계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신과학운동의 움직임 외에도, 그 동안 인류의 역사를 공격, 정복, 폭력으로 일관해 온 남성지배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문화가 학계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가정학이 기존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의 틀 안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가정학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의 주류는 실증주의적 방법이지만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비실증주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가정학으로 하여금 개개인의 자유로운 욕구와 자율적이고 행복한 가족원에 대한 관심을 억압시킨다고 하였다(Brown, 1985). 특히 가족에 대한 규범이 통시적, 불변적이기 보다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한 사회내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많은 현상을 이해하게 해 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실증주의가 지닌 객관성, 예측성과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관성과 객관성을 포용하는 보다 넓은 전체론적 관점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3. 가정학의 새로운 이론구축을 위한 시도

1) 일반이론의 필요성

가정학이 다루는 현상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미시적일 수도 있고 거시적일 수도 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면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인간과 환경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인 면도 있다. 이에 덧붙여 같은 현상이라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으로 달리 해석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단 하나의 단일적인 차원이 아닌 복합적인 차원을 지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학자에 따라서는 식품과 영양 분야는 엄연히 자연과학에 속하므로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자연과학 분야조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학문의 시대적 조류에 영향을 받으며 인문과학의 성격을 흡수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가정학의 흐름은 자연과학 중심에서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식·주 어느 분야이든 아직 미개척 상태인 인문사회과학적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기이므로, 가정학의 모든 분야에 합당한 일반이론(General Theory)의 구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2) 사회현상의 주요 수준

가정학의 하위영역 중 가족학 분야에서는 1950년대부터 가족학의 이론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이론화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즉, 1959년에 Hill 등이 발간한 가족학 연구 목록을 시작으로 Hill과 Hansen(1960), Cristensen(1964), Nye 등(1966), Nye와 Berardo(1966), Broderick(1971) 등의 여러 학자가 가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들을 제시해 왔다. 현재까지 가족학은 일반 이론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그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중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을 형성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그동안 양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분야를 중심으로 명제를 구성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론화를 시도함으로써 추상성이 적은, 그러나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을 형성하였다.

Merton(1957)에 의해 그 개념이 시작된 중범위 이론은 현실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론을 거부하고, 경험적 조사와 자료에 근거하여 특정 영역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유용성을 지닌다.

가족학 분야에서 중범위 이론을 전개하는데 가장 기여한 것은 1979년에 Burr와 그의 동료들이 출간한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 II 권으로

서, 가족 분야의 연구와 이론들을 집대성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정교하게 구성된 이론은 배우자 선택, 가족 스트레스, 결혼의 질 등에 관한 이론이고, 아직 초기 단계이나 앞으로 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사소통, 세대간 지속성, 형제관계, 출산 등에 관한 이론이며(Holman & Burr, 1980), 그 대표적인 개념들로는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갈등이론, 현상학적 이론 등을 들 수 있다(김경신, 1993).

그러나 중범위 이론만으로는 이론 정립의 과제를 다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가족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란 불가능하며, 현재 위치에서의 최선은 가장 적절하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에 앞서 우리가 과연 기존 이론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개발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론정립의 새 장을 여는 첫걸음을 해야 할 임무를 자각해야 한다.

가정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분류하는 바람직한 유형으로는 리처(Ritzer)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즉, 그는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규르비취(G. Gurvitch)에 의해 전개되었던 사회적 현실의 수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사회현실을 거시적-미시적 연속선과 주관적-객관적 연속선을 교차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규르비취는 두 연속선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태적인 것으로 다루기를 거부하였으며, 그 대신 사회생활의 동태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그 용어들을 사용하였다(최재현 역, 1988).

가정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회현실의 수준들을 이 두 연속선 상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수준에 해당되는 연구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가령, 식생활 분야라면 거시적-객관적 수준에 관한 연구로는 식품의 수입개방에 따른 가정의 식생활 변화를 들 수 있고, 거시적-주관적 수준으로는 식생활문화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미시적-객관적 수준으로는 외식행동과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를, 그리

	거 시 적		
객관적	〈거시적-객관적〉	〈거시적-주관적〉	주관적
	사회, 법, 제도	문화, 규범, 가치	
	〈미시적-객관적〉	〈미시적-주관적〉	
	가족행동, 상호작용 유형 생활양식	결혼만족도 정서적 유대감, 적응력	
	미 시 적		

〈그림 1〉 사회현실의 주요 수준들

고 미시적-주관적 수준으로는 부부간의 식생활관리 참여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도 있다. 즉, 거시적-객관적 수준의 변화가 미시적 주관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수준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생태학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다. 즉,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고 가족의 식생활이 개인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관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 양자간의 공존을 위해 인간이 어떠한 식생활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환경보전과 자원의 분배 및 순환에 대하여 가정학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관-객관의 구분이 미시-거시의 구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동안 미시-거시의 차원에 익숙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현실은 그에 못지 않게 주관-객관의 차원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삶의 질(quality of life)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든다고 할 때, 한 국가의 GNP나 상하수도 시설, 범죄율 등으로 측정하는 것은 객관

적 차원에 해당되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평가하도록 한다면 주관적 차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모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가정학연구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거시적-객관적 수준과 미시적-주관적 수준을 많이 다루고, 거시적-주관적 수준과 미시적-객관적 연구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3) 가정학의 패러다임 : 인간생태학

가정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인간생태학의 타당성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해진다.

첫째, 가정학의 고유성이 인간생태학의 관점과 상응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가정학자 송도(松島)는 가정학의 독자성 및 고유성을 규명할 때, 가장 적절한 개념은 '가정성(家政性)'이라고 말할 바 있다. 가정성이란 개념은 가족원들이 가정생활의 독자적 기능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의 주축이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가정성은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성은 목표지향적이며, 생명중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기능의 효율성보다는 적합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므로(유영주, 이정연, 1994:35), 생태학적 균형과 적응을 대전제로 하며, 개인 및 가족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생태학은 가정학의 독자성 및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둘째, 인간생태학은 종합과학인 가정학의 제반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학에서 분야별 이론구축은 어느 정도 시도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족학 분야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거시적-미시적, 그리고 이론적(기술적)-실제적(실천적) 연구로 나누었으며(유영주, 1993),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크롤(R.J.Kroll)과 헌트(S.D.Hunt)의 모델을 기초로 기초-응용, 미시-거시, 사적-공적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분석 차원이 제시되었다 (최은숙 등, 1990).

주거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구조간의 관계에서 인간 외적인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조주의적·비구조주의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관점으로는 문화이론, 근대화 이론,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경제학자들의 관점을 포함시키고, 후자의 관점에는 개인은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동인에 의해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신고전주의의 경제학적 접근, 행동적 접근,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 등을 포함시켰다(홍형욱, 1993). 이러한 접근들은 학문의 갈래를 나누고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시/거시, 그리고 주관/객관의 차원에서의 제반 사회현상들을 모두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인간생태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관점이므로, 정적인 차원을 다루는 어떠한 접근방법보다 가정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생태학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성에 있다. 아직 개념이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나, 인간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상호의존해 있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진보의 개념이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라 최적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상호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비추어볼 때,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학문들의 공동 노력을 추구하는 전체적 관점에서 인간생태학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인간과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공통된 언어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분리되어 있는 연구영역들을 연결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 통일성을 부여해준다. 중범위 이론만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다.

세계, 인간생태학은 미래 가정학에서의 적용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인간생태학이 가정학의 분야에 적용된 연구들을 보면, 디콘과 화이어버(Deacon & Firebaugh, 1975)는 가족자원관리 현상을 체계론적 접근법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칸터와 레어(Cantor & Lehr, 1975)는 가족과정 이론을 위한 체계구조들을

제시했고, 모리슨(Morrison, 1975)은 주거와 에너지 연구에 유용한 체계구조들을 제시했으며, 팔루치, 홀과 액신(Paolucci, Hall & Axinn, 1977)은 가족의 의사결정 행동을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스펡글러와 무크(Spangler & Mook, 1978)는 식사관리를 위한 실험실습지에 인간생태학적 모델과 개념체계들을 사용했다(윤종희, 1991 : 224).

이외에도 인간생태학은 미래 가정학의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인간생태학 이론은 단순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의 규명보다는 체계의 전체성(Wholeness)안에서 가족현상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들이다. 우리는 인간생태학이라면 얼핏 거시적 도식에만 적합한 추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인간생태학은 어느 수준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정학의 하위 영역별로, 이를테면, A 영역에서는 미시적 분야의 분석에 그리고 B 영역에서는 거시적 분야의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 왔던 점이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다른 이론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는 종종 거시적·객관적 구조들, 특히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들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현실의 복합적 수준들에 관한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마르크스가 사회현실의 모든 수준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풍부한 통찰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일반적으로 미시·주관성과 미시·객관성을 다루는 하나의 관점으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에 사회현실의 거시적 수준들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Maines, 1977).

블라우(Peter Blau)의 경우는 미시적 교환이론을 통해 그것을 거시적 문제에 적용하는 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 또는 패러다임은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이론적 도식을 갖추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이론들을 여러 수준으로 확장하는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정학에는 아직 모두가 동의할 만한 통합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나,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생태학 이론이 통합이론의 면모를 지닌 잠재력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고, 생태학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박이문, 1993).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인위적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그 자체의 자정능력으로 회복되기에는 힘든 위험수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지니고,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무위나 순리와 같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신(神)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중심적 관점을 선언하였듯이 새로운 진체론적인 관점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듯 싶다. 현 상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간과 다른 모든 생물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발전 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인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낡고 잘못된 세계관을 생태학적이고 부를 수 있는 세계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박이문, 1993). 즉,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하며, 미래의 가정학도 이에 상응하는 이론의 정교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III. 요약 및 결론

가정학의 대부분의 연구는 가치중립적이고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표준과학관의 관점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과학철학 내에 변혁이 일어나 단순한 물리주의, 검증주의, 환원주의를 상조하던 과학철학이 무너지고, 주관성과 객관성을 포괄하는 전체론적 관점을 지닌 과학 철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가정학이 다루는 현상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며, 환경이라는 맥락안에서의 인간 및 가족행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시적일 수도 있고, 거시적일 수도 있으며 객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지각한 현상이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나, 추상적인 이론을 거부하고 경험적 조사에 근거하여 특정 영역별로 이론을 도출해내는 중범위 이론만으로는 가정학이 하나의 과학이론으로서의 과업을 다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현상의 수준을 미시-거시, 주관-객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서 인간생태학의 적합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에 인간생태학은 가정학의 초기에 제시된 지나간 이론이 아니라 가정학이 추상적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이론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김경봉(1986).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2) 김정신(1993).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1).
- 3) 문수재·유영주·이은영·윤정숙·문숙재 공저(1993).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수학사, 35.
- 4) 박이문(1993).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5) 유영주(1993).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제1상, 하우, 28.
- 6) 유영주, 이정연(1994).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33-34.
- 7) 윤중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족학 연구회 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세8장. (주)교문사, 197-226.
- 8) 이거영(1986). 가정관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연

- 구방향. 대한가정학회 86년도 춘계학술대회, 15-18.
- 9) 이정모(1987). 인지과학서설. 이정모 등, 인지과학, 민음사, 17.
- 10) 이좌용(1983). 지식의 체계와 적합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 민음사.
- 11) 장명옥(1993). 가정학원론. (주)교문사, 68.
- 12) 최은숙 · 이기춘 · 박명희 · 김기옥 · 윤정혜(1990). 소비자학의 성립과 연구영역. 소비자학 연구 1 (1), 19-40.
- 13) 최재현 역(1988). 현대사회학 이론. 형설출판사.
- 14) 홍형옥(1993). 인간 · 환경 · 생활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가정학회. 제6차 한일 가정학 심포지움 자료집, 67-75.
- 15) M. M. Brown(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 Our practical intellectual heritage. Michigan State University.
- 16) M. Bubolz, J. Eicher & M. Sontag(1979). The Human Ecosystem : 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28-31.
- 17) D. R. Maines(1977). Social Organization, Social Structure in Symbolic Interactionist Thought. In Alex Inkeles, James Coleman, and Neil Smelser (eds.), A Review of Sociology 3:259-285.
- 18) B.Paolucci, O. Hall & N. Axinn(1977).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